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2010 / 7



“참 나를 찾는 여정”

2010 『길상사-맑고향기롭게』 여름 禪수련회

- 1차 7. 24(토) - 7.26(월) 청소년/ 6만원/ 70명
- 2차 7. 27(화) - 7.29(목) 어린이/ 6만원/ 90명
- 3차 7. 31(토) - 8.03(화) 일반인/ 12만원/ 70명
- 4차 8. 07(토) - 8.10(화) 일반인/ 12만원/ 70명

□ 수련청규(淸規)

- 1) 수련 기간 중 묵언하며, 전화기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 2) 예불, 공양에 빠지지 않으며, 정해진 일과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 3) 음주와 흡연, 간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 4) 수련회의 진행에 관한 지도법사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5) 자신의 종교를 내세워 개인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1-136827 (예금주 : 길상사)

* 입금자명 : 수련회 차수 + 참가자이름 (예 : 1차 김00)

* 실제 참가자와 입금자가 다른 경우, 신청서에 입금자명을 정확하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명단게시 : 길상사 홈페이지 - 수행터 - 알립니다)

담당 : 모아라 ☎ 02)741-4696/7 FAX 02)741-4698

이메일 : kilsangsa@templestay.com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0 / 7

다시 읽는 산방한담 / 범정	4	다시 읽은 책 이야기
이달의 법문 / 덕현	6	진리, 바로 나임에도 그리운 당신
불교문학 / 임현영	10	법정수필에 나타난 생태적 상상력
봉사하는 사람들 / 심지명	18	지장전 아래 도토리 창고를 아시나요?
수행하는 사람들 / 향인	20	아침 좌선 수행 참가기
나누는 기쁨 / 각 봉사모듬	21	6월 활동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25	서울모임
	27	부산, 대구, 경남모임
여기는 길상사	30	7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이런저런 얘기	32	여름 선수련회에 부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0년 7월 1일 발행 / 통권 185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여운현 / 편집장 이성학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천 / 인쇄처 계명문화사 / 부산모임:(051)898-2672~3 / 대전모임:(042)823-0770 / 경남모임:(055)266-0170 / 광주모임:(062)236-3129 / 대구모임(053)753-8883 / <http://www.clean94.or.kr> E-mail: wlotus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kilsangsa@hanmail.net



다시 읽은 책 이야기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중에서

法頂 (스님)

불일암에서 몇 장 들추어보
다가 시들하게 여겨져 그만둔 책
을 이곳 오두막에서 다시 펼쳐
보고 커다란 감동을 받는 일이
더러 있다. 나카무라 고지의 「청
빈의 사상」에서 그 청빈한 삶
을 극구 찬양한 양관 화상(良寬
和尚, 1758~1831)이 있는데, 그
스님이 써놓은 시가(詩歌)를 중
심으로 엮은 일화집으로 「양관
이야기(良寬物語)」가 있다.

그가 한 산중의 보잘것없는
초암(草庵)인 오홉암(五合庵)에
서 지낼 때다. 오홉암이란 하루
다섯 홉씩 한 사람이 겨우 살
아갈 만한 식량을 본사에서 대
준 데서 온 이름이다. 그러나 양
관이 이곳에서 지낼 때는 그 다
섯 홉의 식량마저 공급이 끊겨
손수 마을에 내려가 탁발을 해

다가 근근이 연명을 해야만 했다.

이런 가난한 암자에 하루는
도둑이 들었다. 낮에는 깔고 앉
아 좌선을 하고 이불이 없어 밤
에는 덮고 자는데, 도둑은 그
방석을 훔쳐 가려고 했다. 스
님은 도둑인 줄 알면서도 그가
놀랄까 봐 모로 누워 그 방석을
손쉽게 가져가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
고 지나온 어느 날 한 사나이
가 이불짐을 메고 스님을 찾아
온다. 사나이는 몇 해 전 가난
한 암자에서 방석을 훔쳐 간
도둑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면
서 용서를 빈다.

그때 그는 스님이 일부러 자
는 척하면서 방석을 손쉽게 가
져가도록 한 사실을 알고 더욱
가책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의 청빈과 너그러움이 말없는 가운데 도독을 감화시킨 것이다.

욕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구하는 바 있으면 만사가 공하다 담백한 나물밥으로 주름을 달래고 누더기로써 겨우 몸을 가린다 홀로 살면서 노루 사슴으로 벗하고 아이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논다 바위 아래 샘물로 귀를 씻고 산마루의 소나무로 뜻을 삼는다

양관의 시다. 양관은 32세 때 스승에게서 깨달음의 인정을 받은 후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퇴락한 빈 암자만을 골라 가면서, 그 어디에도 매인 데 없이 한 날 가난한 탁발승으로서 살아 간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73년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가 원통사라는 절에서 스승을 모시고 수행중일 때 그 절에서 30년을 두고 묵묵히 일만 하는 한 스님을 보고 큰 감화를 받는다. 그는 다른 스님들처럼 참선도 하지 않고 경전

도 읽지 않고 오로지 밥 짓는 일과 밭일만을 할 뿐이다. 묻는 말에나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 그는 아침이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 물을 길고 밥을 지으며 자신이 가꾼 채소로 맛있는 찬을 만들고 국을 끓인다.

대중이 선실에 들어가 참선할 때 그는 혼자서 넓은 식당과 주방을 깨끗이 쓸고 닦는다. 남들이 싫어하는 변소 청소도 자신이 맡아서 한다. 그리고 잠시 틈이 나면 밭가에서건 공양간에서건 그 자리에 앉아 꾸벅 꾸벅 졸 뿐 결코 허리를 바닥에 대고 눕는 일이 없었다.

바보처럼 여기던 양관도 뒷날 그가 진정한 수행자였음을 알아차리고 그의 덕을 기린다.

한 사람의 인간 형성에는 이렇듯 이름 없는 조연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 조연자는 주연자의 삶을 통해서 거듭 꽃피어 난다.

당신은 조연인가 주연인가.
(1993) 



진리, 바로 나임에도 그리운 당신

德 賢 (본모임 이사장, 길상사 주지)

오도悟道 이후, 경허스님의 허다한 기행과 격격 밖의 선지禪旨는 화들짝 중생의 잠을 깨우는 죽비의 경쾌과도 같았다. 주장자 하나 메고 하늘가의 방랑객이 되어 천하를 주유하던 경허스님이, 어느 날 시골 아이들 앞에 섰다.

“너희들, 내가 보이느냐?”

“네.”

“내가 누군지는 아느냐?”

“모릅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찌 보인다고 하느냐?”

“.....”

진리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이전에 있다. 말이나 기호, 온갖 상징 등으로 설명되기 이전에 있고, 우리에게 보이고 지각되기 이전에 있다. 진리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 차원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나 알음알이의 대상이 아니라 닦아서

깨달아야 할 그 무엇이다. 진정한 이해와 사랑은 그로부터 샘솟아난다.

나는 당신이 보고 싶고 당신이 알고 싶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불불불상견佛佛不相見. 부처와 부처가 서로 보지 못한다. 나 스스로를 본 적이 없고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내가 당신을 도대체 볼 수나 있고 알 수 있는 일일까?

우리는 언제나 사실을 잘못 알 수 있다. 잘못 듣고 잘못 볼 수도 있다. 아니, 사실은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한 그 최초의 근본무명 때문에 이 기나긴 생사의 꿈을 꾸고 있다. 도불원인 인자원의道不遠人 人自遠矣. 도는 사람을 멀리 하지 않는데 사람이 스스로 도에서 멀어져 있다. 도가 본디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개에 가려지거나 베일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중생의 시력은 본래

한계가 있고 생략적으로 이미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토록 불완전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또 몹시 어설픈 의사 전달이나 소통의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쿵저러쿵 떠들면서, 도에, 진리에, 진실에 아득바득 가까이 가고자 하고 끝없이 연모하지만 그것은 참 힘 빠지는 짝사랑이다.

혹독하게 말하면, 기호나 상징, 언어와 문자를 이용한 인간의 소통과 전달, 기록과 저작의 역사는 많은 부분이 온통 곡해와 기만의 역사이다. 과연 관찰과 탐구, 조사와 연구는 얼마나 진실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거쳐 표현되고 기술된 것들은 도대체 있는 그대로의 실체적 진실을 비슷하게나 묘사하고 있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 멀리 있거나 오래된 것들도 그렇고 가까이 있거나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도 전혀 예외가 아니다. 인간은 과연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인지, 천안함은 어쩌다 물속에 가라앉은 것인지... 모든 것이 오리무중일 때, 신만은 아시겠지라고 습관처럼 되뇌지만 그런 신은 한 번도 나서서

진실을 증거한 적이 없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정말 좋을까?

나는 고난의 한 때를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쉽고도 은근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는 깊은 뜻을 품은 대가로 의도하지 않은 유명세에 늘 지치고 피곤해 하시는 스승을 젊은 날에 보면서, 목숨을 보존하려면 난 유명해지지 말아야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러니컬하게도 그 스승 때문에, 중으로서는 이미 펍 불명예스럽고 불편할 만큼 얼굴이 노출되고 말았다. 몇 차례 대중매체 등과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에 응한 것은 그 때문이었고 그 결과는 당연히 악순환을 가져왔다.

무슨 일인가 회의나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리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은 것을 애써 덮어두거나 모른 체하며, 아니면 반대로 눈 딱 감고 믿어버리는 데 안주한다. 오래 전해져온 것이나 다수가 믿는 것, 어떤 권위가 강요해오는 것들을 그냥 순한 양처럼 믿고 만다. 매일 신문

이나 방송을 접하고 거기 실리는 뉴스들을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일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는다. 바쁜 일상 속에 자꾸 자꾸 흐려지는 안경을 닦으며 허둥지둥 살아가는 우리이지니, 내가 보고 살아가는 이 구석진 울타리 밖의 저 드넓은 세계를 마치 놀라운 전자자수知者의 눈처럼 다 보고 다 알아낸 다음 친절하고 자비롭게도 안방에 앉은 나에게 속속들이 전해주는 매체들을 어찌 믿지 않고, 어찌 귀의하고 숭배하지 않을 수 있으랴. 스타가 되거나 스펙터클의 지휘자가 되어 헐리우드나 발리우드(Bollywood 인도영화산업), 한류우드에 살진 못하더라도 잠시라도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하고 꿈이라도 안고 살아야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속기하는 기자의 펜 앞이나 카메라의 앵글 앞에서 어색한 마음으로 취재를 당하거나 직접 텔레비전에 나가 보면,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내 모습이나 이야기가 활자로, 화면으로 만인 앞에 개봉되는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불행하게도 내 느낌은 썩 좋지가 않았다. 조금 속았다

는 느낌이고 이용당했다는 느낌이다. 저 신문지나 텔레비전 화면 뒤에 숨은 거대하고 막강한 조직이나 시스템의 힘이 비로소 무섭게 느껴진다.

보도된 것은 언제나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사실의 보도라 해도 그것 자체가 실제 일어난 사실은 아니다. 이것은 하루의 일기가 그날 하루에 벌어진 일 그대로가 아니며, 역사 기록이 역사 그 자체는 아닌 것과 다름이 없다.

시대를 돌이킨다는 것은 한번 흘러와버린 강물을 역류시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 날로 첨단화되는 온갖 장비와 온·오프라인상의 온갖 매체의 발전에 힘입어 이렇게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시대에 그나마 양식이 있고 미래에 대해 꿈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역할은 그 흐름을 방향 잡는 일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방수防水하는 것이 아니라 치수治水하는 것이다.

“군주는 인간인 동시에 야수로, 사자인 동시에 여우로 행동하는 법을 체득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에

상반될 때는 약속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정직은 언제나 불리하다. 반면 자비롭고 청렴하며 인도적이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면 유익하다. 사실 덕망으로 위장하는 것만큼 유익한 일은 없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의 말이다.

선악의 싸움은 어디에나 있고, 지금 그 결전장의 전방은 스펙터클 안의 온갖 이미지와 영상과 정보와 데이터들이 떠오르고 배치되어 집결되고 다듬어지고 조작되고 왜곡되는 장들이다. 오늘의 전장에서 선의 편에서 싸움을 하려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보의 검을 들고 저 거인처럼 위세 좋게 달려드는 마키아벨리스트들과 겨루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한 구도자이기를 바란다면, 우선 냅다 그냥 믿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며, 더러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절대적 권력이 내 편이라고 믿고 강아지처럼 기대기보다는, 땅에서 나무처럼 내 발로 일어서야 하며 양심의 힘으로 가지를 들어야 한다. 편리한 믿음의 이불을 덮고 잘 것이 아니라 탐구심으로 눈을

뜨며 실험정신으로 기지개를 켜야 한다. 잘 알지 못한 채 되는 대로 떠드는 대신 침묵하고 기다리기도 해야 한다.

아, 그러나 사실은 이 구도를 향한 일전一戰조차 우리의 꿈속에서, 마음 안에서 덧없이 벌어진다. 사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선의지와 악업의 싸움이며, 분별과 무분별의 싸움이며, 이해득실과 무소유의 정신 혹은 무욕청정심의 싸움이다. 이기적 자아와, 무아無我를 통찰하는 반야般若의 싸움이다.

모든 것은 마음의 숨, 마음의 꿈, 마음의 춤이다. 민주주의도 결국 표의 대결이나 축구경기 같은 골 대결이 아니라, 온갖 미망에서 깨어나 무아 속에서 참 자아를 찾는 자가 온 법계의 주인이 되는 마지막 승부가 될 것이다.

불조佛祖처럼 이심전심은 하지 못할지라도 저 광음천光音天의 신들처럼 빛으로 말하고 당신의 마음에서 발하는 빛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읽고 싶은 오늘이다.

나무야 어서 걸어오너라. 광겁廣劫의 잠에서 깨어 너를 타고 갈 데가 있다. 



법정 수필에 나타난 생태적 상상력

임 현 영

임현영 (1941~) : 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장, 중앙대 겸임교수, 저서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문학과 이데올로기> 등, 2010년 1월 「법정수필에 나타난 생태적 상상력」으로 제15회 현대불교문학상 평론부분 수상, 본란에서는 분량과 소식지의 성격상 각주와 일부 학술적인 내용은 생략합니다. - 편집자 주

1. 무소유의 에코소피

1932년 해남에서 태어난 본명이 박재철인 이 “태고의 정적 속에서 산신령처럼 무료로 지내고 싶네.”라고 노래하며, “홀로 사는 일에 이 골이 나서 이런 외떨어진 산중에서 홀로 지낼 때가 가장 흥가분하다. 내 삶이 가장 충만할 때가 바로 이런 격리된 환경에서다.”라는 법정은 “선승이며, 자연주의 사상가이고 실천가”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근엄하게 소개했지만 정작 법정 자신은 “석가모니와 같은 환경이었다면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은 출가를 하지 않았을 거”라며 인간미 풍기는 속내를 아래와 같이 털어 놓는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내 식대로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났노라고, 세상이 무상해서라거나 불교의 진리에 매혹되어서라거나 혹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라고는 말할 수 없다. 덧없는 게 어디 세상뿐인가. 출세간의 일도 덧없기야 마찬가지지. 그리고 불교의 진리가 무엇인지조차 출가 전의 나는 알지 못했었다. 중생구제 운운은 현재 한국 불교도의 처지로서는 당치 않은 표현이다.”

스님이 되지 않았으면 목수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이 매력적인 노승은 산속에 머물면서도 국내외의 온갖 명승지와 뛰어난 예술작품을 섭렵하는가 하면 속세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추악한 변뇌에도 참견

하는 근면가이기도 하다. 국수와 빵, 표고버섯과 양배추, 맨 간장, 김치를 주식으로 삼았던, “내 식성은 촌놈에다 토종이라 마요네즈나 토마토케첩 같은 것은 비위가 상해 전혀 먹을 수가 없다. 먹는 음식으로써 그 사람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이 선사를 화두에 올린 까닭은 그의 방대한 저작에 나타난 생태사상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산문집 13권, 기행집 1권에서 경전 번역서 4권(필자가 읽은 것만)에 나타난 법정 선사(필자가 읽은 것만)에 나타난 법정 선사의 생태사상은 그 글에 못지않게 ‘무소유’의 삶 자체라 하겠다. 소로우가 고작 2년 여의 월든 체재로 일약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것에 비하면 그 20배가 넘는 세월을 마하비라의 자이나교도를 연상케 할 정도의 안빈낙도(安貧樂道)를 누린 이 선사야말로 생태사상의 활불이래도 그리 호들갑은 아닐 터이다.

법정 생태사상의 핵심어인 ‘무소유’가 발표된 것은 1971년으로 서양의 에코소피가 형성된 1973년 무렵이었는데, 서양의 생태론 연구처

럼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통합적인 개념에 이르도록 작용한 것은 불교 경전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구환경의 위기도 따지고 보면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에 원인”이라는 근원적인 접근은 당연히 ‘무소유’ 철학으로 연계되는데, 이 순환논리는 바로 불교적인 관점으로는 지극히 상식적이건만 여기에 강조점을 찍어 한 시대의 정신운동으로 격상시킨 공로는 역시 법정의 몫이다. ‘무소유 사상’은 법정의 전매 특허처럼 굳어진 그의 생태계 사상만이 아닌 모든 사상의 결정체로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所有史)처럼 느껴진다. 보다는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무소유」)는 데서 출발한다.

법정에게 소유란 재산이나 자식 등 형상을 지닌 것에 대한 탐욕만이 아니라 인간의 고정관념(정신 상태)까지 포함한다. “묵은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알려진 것들에서 자유로워져야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다. 내 자신만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 누구도 내 인생

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나는 보다 더 단순하고 소박하게, 그리고 없는 듯이 살고 싶다”는 말은 빈 마음, 무심(無心)의 경지를 다루고 있다.

법정이 즐겨 인용하는 간디의 “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다.”는 말은 무소유사상의 원리를 꿰뚫는 촌철살인이다.

2. 생명사상의 의미 -

제비꽃은 제비꽃다워야

무소유의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법정의 생태사상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에서 그 실천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 생명사상은 그에게 (1) 개성적인 존재 가치와, (2)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생명유지의 오묘한 세계, (3) 불교적인 연기설(緣起說)에 얽혀서 공생하는 존재, (4) 다른 생명을 결코 죽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발전 전개된다.

꽃한테 왜 철따라 피느냐고 따지면 과학적으로는 기온과 햇볕과 토양과 수분의 영향이라 하겠지만 “생명의 신비요, 자연현상”인 우주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그 해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정의 해명인데, 이를 비과학적이라고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꽃이 피어나는 것은 생명의 신비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잠재력이 꽃으로 피어남으로써 그 빛깔과 향기와 모양이 둘레를 환하게 비춘다. 그 꽃은 자신이 지닌 특성대로 피어나야 한다. 만약 모란이 장미꽃을 닮으려고 하거나 매화가 벚꽃을 흉내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모란과 매화의 비극일 뿐 아니라 둘레에 꿀벌건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에는 생명에 대한 절대가치는 그 존재가 지닌 개성적인 특성을 지녀야만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달리 표현하면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그만이지, 제비꽃이 핏으로써 봄의 들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하는 점은 제비꽃으로선 알 바가 아니라는 게 법정의 생명의 유일성으로 이견 그 존귀함을 나타낸다.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는 다 자기분수에 따라 제자리에서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유독 사람만이 그 질서에서 이탈하여 화평을 파괴한다는 것이 법정의 통회(痛悔)

며, 그 이유인 ‘소유욕’을 억제하려는 게 무소유의 생명사상이다. 더구나 인간들은 생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고자 죽이기도 하는데, “사냥이나 낚시가 바로 그것”이며, 이밖에도 “여가를 이용한 놀이와 오락”들이 죽음을 즐기게 만든다는 게 이 선사의 진단이다.

이처럼 무소유사상에 이르지 못한 인간은 무자비해져 소유욕의 충족을 위하여 우주의 섭리를 거슬리며 그런 가운데서 에코소피의 파괴현상은 늘어난다고 범정은 진단하면서 아래와 같이 논파한다.

“미국소의 광우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초식동물인 소에게 같은 소의 뼈와 내장을 사료로 먹이기 때문에 소가 미쳐버린 것입니다. (...) 만일 사람에게도 사람의 시체를 먹게 한다면 미쳐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범정은 다시 불살생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한 쪽이 약하다고 해서 죽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가령 입장을 바꾸어, 사람보다 훨씬 교활하고 힘센 짐승이 그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혹은 그의 손버릇 때문에 우리들의 귀여운 자녀들을 앓

아간다고 생각해 보라. 우리는 얼마나 원통하고 분할 것인가.

목숨은 어떤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그는 생명 그 자체가 온전한 목적이며 하나밖에 없는 절대가치라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다른 동물이 아닌 인간 그 자체에 의한 인간의 죽음(희생)도 포함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죄악으로 치부된다. 어떤 명분으로도 생명에 대한 약탈과 박해는 죄악이라는 사상이 범정의 기본 사상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인간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권 억압도 용납 않는다. 그러기에 살려고 하는 “생명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일은 악덕 중에서도 으뜸가는 악덕”이며, 여기서 생명이란 “생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뜻하며 온갖 삼라만상과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 의지해 끝없이 주고받으면서 우주적인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3. 자연 - 국토와 농업문제

범정에게 자연이란 인체 그 자체의 확대이자 우주의 질서를 알려주는 삶의 교사에 다름 아니라

는 아시아적인 지혜에 닿아있다. “대지는 모든 중생들의 뿌리다”라는 말이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들 각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현상의 그림자다.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냐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라는 말은 서양과는 다른 자연관의 일단이다. 물론 서양에도 이런 자연관이 없는 건 아니라면서 이 선사는 아래와 같은 삽화를 소개한다.

백인 추장(미국의 대통령)이 자기들에게 땅을 팔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우리가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판단 말인가. 우리로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부드러운 공기와 재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로부터 사들이겠단 말인가”라고 항변한 시애틀 추장의 그 유명한 연설문을 비롯하여, 여러 부족의 추장들이 문명사회에 던진 대지와 인간의 관계를 역설한 글들로 엮여 있다. 자신의 육체를 팔 수 없듯이 대지를 팔 수 없다는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은 가장 낡은 상식이면서도 가장 진보적인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는 에코소피의 자연관일 것이다. 그래서 “자연은 부처나 예수, 모하메드나 간디보다도 더 위대한 스승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연의 제자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신앙의 차원을 넘어선 우주의 경전에 가깝다.

“자연과 인간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거나,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모성(母性)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교사다”란 말이 주는 교훈성은 진부하지만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는 에코소피의 기본인데 여기서 범정은 다시 인과율을 강조한다. 인간의 생활은 생태계적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들 인간의 행위가 곧 자연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행위는 다시 결과로써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이런 현상이 인과(因果)의 법칙이고 우주질서다.

법정의 글에서 인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건 불경 외에 인디언의 명언들인데 그 중 가장 빛나는 건 자연과 인간의 일체화 내지 교감을 그린 대목이다. 체로키족 추장 ‘구

르는 천둥'의 충고는 경청할만한 명언이다.

“지구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다. 지구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의지를 가진, 보다 높은 차원의 인격체다. 따라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지구도 마찬가지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며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가하는 것은 곧 지구에게 상처를 가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주장은 아래와 같이 경고한다.

인간이 한 장소를 더럽히면 그 더러움은 전체로 퍼진다. 마치 암세포가 온몸으로 번지는 것과 같다. 대지는 지금 병들어 있다. 인간들이 대지를 너무 잘못 대했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지구 전체에 대한 에코소피적인 우려는 이 작가로 하여금 구체적인 우리 국토와 농업문제

로 그 화두를 옮겨간다. 국토란 정복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주체임은 이미 공감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국토란 무엇인가. 그냥 있는 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삶의 터전이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아득한 그 옛적부터 삶을 이루어온 땅, 우리들의 육친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와 살이 녹아든 땅, 수많은 영혼들이 쉬고 있는 성스러운 대지다. 그러니 국토가 더럽혀져 있다는 것은 우리들 조상의 넋을 짓밟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러 범정은 ‘자연보호’ 운운하면서 도리어 국토를 파괴하는 한국적 현실에 대하여 준열한 비판을 가하는데 그건 대개 지난 시기의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과 그 맥을 함께 한다. 본래 있는 그대로를 놔두는 게 최선책인데 보호한답시고 결과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그의 직격탄은 바로 한반도 대운하를 겨냥한다. 우리 민족의 생존은 당연한 일 같지만 하나의 기적이자 축복으로 보면서 이 작가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살아 있는 굽이굽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산야를 거론한다. “이런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깊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흐르지 못하도록 채워 놓고 강변에 콘크리트 제방을 쌓아 놓으면 그것은 살아 있는 강이 아니다”는 생태학적인 상상력은 미래에 닥칠 “커다란 재앙”으로 연결시킨다.

자연조건에서 법정이 역점을 둔 쟁점은 농업 문제이다. “농민의 수는 3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퍼센트밖에 안됩니다. 그나마 이들 대부분이 60세 전후의 사람들입니다. 농촌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사라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추세라면 우리의 농업 인구는 10년 안에 인구통계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농업 문제를 농민에게만 맡길 수 없는 당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 뒤에는 농촌에서 자행되고 있는 효율과 경제성만을 따진 제초제와 화학비료 등 각종 약품의 남용으로 토양이 황폐화해가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이쯤 하면 웬만한 독자

들은 FTA를 떠올릴 것이다. 생태론적 상상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대 기치를 들이 문제에 대하여 법정은 당연히 강력 반대를 펼친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자유무역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을 위한 협정”이라고 보는 그는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강자의 보호주의”라고 풀이하면서 한국 농업의 미래를 염려한다.

법정의 생태적 자연사상은 인간과 대지의 일원론적인 상상력부터 국토와 농업문제라는 구체성까지를 두루 아우르고 있다.

4. 결론 - 에코소피의 외연으로서의 사회적 쟁점

에코소피적 상상력의 외연은 사회학적인 쟁점에 닿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생태계 최대의 적은 전쟁인지라 평화사상이야말로 가장 친에코소피적이며 이런 점에서 에코소피는 진보적 가치관에 입각할 수 밖에 없다. 법정도 이 논리에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 시대를 이렇듯 답답하고 걸

쩍지근하고 심란하게 만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더 물을 것도 없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라 일을 맡아 다스리는 계층에 속한다. 나라의 이익과 백성들의 행복과 즐거움에 끊임없이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은 나라를 잘못 다스린 데서 오는 폐해이기 때문이다”면서 그는 아름다운 생태계를 파괴하여 우리 시대를 추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전쟁과 정치권력의 횡포,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격차, 불의의 폭력이 정의를 짓밟는 작태, 전도된 가치의식, 분배의 불균형, 상호불신 풍조 등을 열거한다. 대체 이런 현상이 에코소피 사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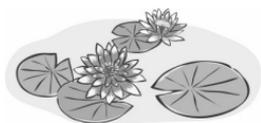
그 해답을 법정은 이 땅의 언어와 풍속과 흙과 자연과 정다운 이웃들, 그리고 자유와 평등과 질서를 지키고 가꿀 사명은 동시대인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그것은 헌법이나 무슨 조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천부(天賦)의 권리요 의무”라고 명시한다. 덧붙이면 자연 파괴를 자행하는 세력에 대한 방어의 의무가 동시대인 모

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라 하겠다. 여기서 법정이 결론적으로 내세울 논리는 예상대로 불교적인 연기설에 입각한 공동체의식이다.

“우리들은 이 시대와 장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형제들이다. 같은 나무에 열린 열매들이다. 우리들이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연의 농도가 짙어서이다. 그 중에도 같은 지역에 살게 된 것은 불교적인 표현을 빈다면 몇 생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좋으나 곳으나 공동운명체의 명예를 함께 메고 있다.”

이를 구호화하면 “서로 손을 잡아, 억만의 이웃이여! / 이 포용을 온 세상에 퍼뜨리자!”로 변형된다.

법정은 선동가일까. 천만에. 그는 역시 선승의 자세로 돌아가서 차분하게 선(禪)의 자세를 취한 채 정치와 과학이 못하는 일을 종교는 담당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지장전 아래 도토리 창고를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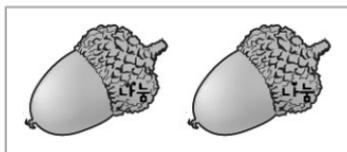
심 지 명



길상도서관은 지장전을 불사할 당시, 범정스님께서 도서관을 꼭 마련하라고 하신 당부로 지금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른스님께서 기증받으신 책으로 꾸러지기 시작한 도서관의 장서는 이제 6천권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기증받은 책입니다. 2월말에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문을 연 이래로 천여 권 가까운 책을 기증받았습니다. 적게는 한두 권에서부터 많게는 백여 권에 가까운 책 보시! 한 권 한 권 어디 소중한지 않은 손길이 있을까요? 저희 도서관 봉사팀인 '보리회'에서는 이런 고마움을 표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도토리입니다. 가을이 오면 길상사 뜨락은 떨어지는 도토리로 즐겁습니다. 지나다니다보면 '툭툭'하고 떨어지는 도토리! 다람쥐도 먹고, 떨어진 도토리를

〈도서관 나눔 스티커〉



모아 공양간에서 묵으로 새롭게 태어나 우리들의 미각을 즐겁게도 해줍니다. 도토리 한 알에서 나눔을 배웁니다. 또 도토리는 참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일 년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토리의 의미를 담아 우리 길상도서관에 기증되는 책에 도토리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토요일이면 도서관 문이 열리는 시각부터 종일토록 독서를 하곤 하시던 어떤 거사님이 하루는, 봉투를 건네주시며 필요한 책을 구입 하는 데 쓰라 하셨습니다. 아직 추위가 남아있던 초봄에, 어떤 보살님은 봉사자들 애쓰다며 양말을 건네주시기도 하셨고요. 이러한 마음들 역시 보이지 않는 도토리가 되어 길상 뜨락 어느 켠에선가 참나무 되어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나눔과 결실’, 이 의미는 붙이기 나름이던가요? 우리 도서관에 많은 도토리가 쌓일수록 나누는 마음과 그 마음이 맺는 결실도 함께 늘어나지 않을까합니다. 도토리나무의 정령 토토로와 그 친구들이 도토리 자루를 매고 다니던 영화, ‘이웃집 토토로’를 기억하시나요? 지장전 아래 길상도서관은 아마도 토토로가 탐낼만한 곳이 아닐까 합니다. 도토리 모으는 일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도토리도 물론, 기다리고 있을 거구요.^^



아침 좌선 수행 참가기

향 인 쯤 印

7시 10분 준비 소리에 맞춰 입 정하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다. ‘아침좌선수행’에 대한 공지를 읽고 나도 진지하게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기쁨에 한 걸음에 달려왔고, 하루하루 견뎌내는 자신에게 뿌듯함도 느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하고 경전 읽고 법문 들을 때가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적어도 그 때는 날마다 밝은 마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좀 멀더라도 조바심내지 않고 천천히 가면 되는데, 뭐가 되고 싶다고 이르는 거지?’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워졌다. 그 와중에 이런 저런 색다른 체험에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정신이 팔리기도 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나”라고 지각하고 있는 존재를 낱낱이 비추어 주었고, 서서히 드러나는 존재에는 과거 수 없는 전생과 현생의 업

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 좌선은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라고 인식했던 꿈과 같은 존재를 직시해야 하기에 기도나 다른 수행법보다 혼란스럽고 힘든 것이라 생각한다.

한 달 전, 1주일 전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아주 조금 나아져있고, 좌선 수행에 대한 집착도 조금씩 줄어들기에 그만큼 자유롭고 편안한 나를 발견한다.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거센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 바다를 건너며, 근면으로써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지혜로써 완전히 맑고 깨끗해진다.<숫타니파타>”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내일, 1주일 뒤, 한 달 뒤는 오늘보다 나아져있을 것을 기대하며 내일도 용맹전진의 뜻을 달고 바다로 나갈 것이다.

2010년 6월이 끝나갈 무렵

모희원(6일, 매월 첫째 일요일)

(소감 : 한인섭 모듬장)

3개월간 저 대신 애써주신 한인섭 회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36명에 참석 통보를 했는데 29명이 참석했다. 차량동원에 신경 썼고 사당동에서 기분 좋게 출발했다. 도착하자마자 완전무장(밀짚모자, 장갑, 간이의자 등)하고 고추밭에 들어가기 전에 고추 곁가지(본줄기에서 “V”로 자란줄기) 사이 싹을 제거하는 작업요령을 들었다. 회원들이 예전에는 없었던 작업이라고 질문하니, 모희원 정형 처사께서 작년부터 많은 농작물 수확과 병충해 방지를 위해 관련부서에서 영농공부를 하고 와 시행하는 중이란단. 곁가지 싹 제거 작업은 쪼그리고 앉아서 꼼꼼하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기는 쉬워보여도 작업이 만만치 않다. 오후 작업은 황토방 철거에 따라 각 방에서 나온 헨가구, 전자제품 등 폐기할 것들을 해머로 폐기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고, 나머지 물품들은 재활용품, 소각물품, 보관물품 들로 구분 정리하였다. 계획에 없던 밭에 빠진 차량구출 작전으로 추가로 땀들을 흘렸다.

진인선원(13일, 매월 둘째 일요일)

(소감 : 이금재 모듬장)

일요일 오전 8시 30분 경복궁 건춘문 앞에서 모여 진인선원으로 향하노라면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보게 된다. 진인선원에 도착하면, 먼저 진인선원에서의 아름다운 인연을 부처님께 삼배로 표현하고 활동가들은 그 동안의 안부를 나누는데 이때 먹는 커피와 스낵은 꿀맛 중의 꿀맛이다. 봉사활동은 주로 법당 및 주방청소, 감자, 양파, 파 다듬기, 계절에 따라 간장담기 등이다.

오후에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관음원, 문수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놀이 활동을 한다. 손뼉치기, 짹짹, 보글보글, 어깨 머리 무릎 발 등의 가벼운 율동을 함께 하면서 어르신과 눈 맞추고 손 잡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데 어찌나 정겨운지 사람 사는 맛이 이겨다 싶다. 어르신들과 함께 흘러간 가요와 민요를 부르며 흥을 내고 춤을 추다보면 훌쩍 시간이 간다. 우리들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항상 한 아름 안고 다시 본연의 삶터로 돌아온다. 항상 따뜻한 마음과 기쁜 얼굴로 맞아주시는 사무

실 선생님, 케어 선생님,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방 선생님 등 모두에게 감사한다.

전화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

봉사자별 월간활동 공유

(담당 : 엄경숙 모듬장)

■ **안정희** - 길음동에 사시는 정OO 할머니는 현재 두발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신다. 그런데 얼마 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아들이 전동휠체어를 팔아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밖에 외출을 못하고 집에만 계신다.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휠체어를 무상이나 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동사무소 복지사와 우선 상담하시라 했다.

■ **엄경숙** - 어느 회원님이 친환경 쌀 8kg 20포를 사무국으로 후원하여, 6월 7일 형편이 어려운 분을 선정해 사무국과 봉사자 몇 분이 함께 방문해 쌀을 전해드렸다. 지난해 나눔 행사 때 찾아뵈어 얼굴을 안다는 이유로 더 많이 반가워하셨다. 집 앞 텃밭에 있는 상추를 뜯어서 나눠주시고, 소박한 음식을 준비해주셨다. 봉

사와 대상자간에 이심전심으로 작은 인연을 맺어가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월요팀)

(소감 : 권미자 모듬장)

■ **7일** - 요즘 들어 노인센터에 나오시는 다른팀 봉사자가 많이 줄어들어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든다. 맑고 봉사자님들은 꼭 나와주십사 하는 문자를 드렸더니 25분이나 나와주셨다. 우리팀이 A, B배식에 식판전달 추가배식까지 모두 맡고 식기세척만 다른팀에서 맡아 무사히 급식을 마칠 수 있었다. 55분의 봉사자가 필요한 일을 40여분이 나눠서 하려니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었지만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잘 해주셨다. 봉사가 끝난 후 노인센터급식 담당팀장님과 주방장님께서 몇 번씩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다. 저도 다시 한번 인사드린다. “올 회원님들 최고입니다!”

■ **21일 이서목** -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노인복지센터 봉사를 4번 참여했다. 잠시 직장을 쉬는 동안 뒤통가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처음 참여했는데 한 달여 동안 내게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의 숫자에 놀랐고 많은 봉사자들의 밝은 미소에 나도 밝아 가리라 다짐했었다. 월요일에 이루어지는 봉사라 갔다오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부자가 되어 한 주가 참 즐겁게 시작되었다. 매번 주방앞줄에 서서 단순 배식만 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주방 안에서 국 푸는 작업을 했다. 양 조절이 무척 어려웠다.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답례에 행복하기도 했고, 말없이 그저 뺏듯이 가져가거나 반찬투정을 하는 모습에선 상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같이 봉사하는 범우님의 한 마디에 난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다 저분들이 우릴 공부시키는 거야...” 어르신들 다양한 모습 속에 난 오늘도 또 공부를 하고 돌아온다. 내 이기적인 마음에 에너지를 받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

■ **28일 김숙희** - 건강할 때 남을 위해 봉사 못해본 게 제일 아쉬웠다는 어느 분에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 용기를 내어 자원봉사를 하게 되

었다. 자원봉사를 시작한지 한 달, 부모님 진지 차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한결 같아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된다. 지난 주 김치 추가배식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정광월 보살님도 나도 눈시울을 적시었다. 살림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 음식물이 수도 없는데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반찬들이 한정되어 있어 조금씩밖에 못 드리지만 조금씩 나눠 한분이라도 더 드실 수 있게 하려는 복지회관 관계자분들께 참으로 감사하다.

승가원(1, 3주 일요일)

(담당 : 홍정근 봉사팀장)

6월 6일 햇별이 따사로운 일요일 오전 승가원 장애아동들과 함께 1:1로 짝을 맺어 주변에 있는 고려대 캠퍼스에 짧은 외출을 다녀왔다. 비록 긴 거리는 아니지만 아동들이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세심히 보호해야 되며, 계단을 오르고 내려갈 때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했다. 캠퍼스 그늘에 앉아 아동들과 초소년들이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다. 잠깐 밖으로 나왔는데, 집(시설)으로 가기 싫어하는 아동이 있어 밥 먹자고 조르고 타일러서 들어올 수 있었다. 승가원은 청소년 자원활동으로 운영되는데, 시설사정상 봉사자 인원 제한이 있다. 그래서 자원활동 신청이 들어와도 제때 참여를 못하고 있어, 양해를 구한다. 청소년들과 장애아동들이 자발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 (매주 목, 금요일)

(소감 : 최두리 모듬장)

■ **6, 7일** - 임시공휴일이라 나들이 다녀오셨는지, 아님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늦게까지 보시느라 피곤하셨는지, 목요일은 봉사자분들이 많이 안나오셨다. 그런데다 날씨가 너무 더웠다. 금요일은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다.

■ **10일** - 많은 분들이 김치 담그는 날 못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내심 걱정을 했지만 KTX 나눔회 여러분, 처음 오신 남자분들, 사무실 직원 친구까지 정말 많이 나오셨다. 먹을거

리도 얼마나 푸짐했던지 떡, 도넛, 빵, 커피, 메밀묵, 수박 등. 그리고 여름이면 어김없이 메밀국수를 준비해 오시는 보살님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결과 1,200kg나 되는 배추는 2시가 되기도 전에 맛난 김치로 변신했다.

(총 344가구, 단체1곳)

- 1째주 - 닭볶음탕, 깻잎장아찌
- 2째주 - 김치, 떡
- 3째주 - 새송이 버섯장조림, 오이 도라지무침, 농협상품권, 던킨도너츠
- 4째주 - 청포묵무침, 파리멸치볶음

- 결식이웃후원금 5월 1일 ~ 31일 15,217,500원
- 결식이웃 밀반찬 후원
익명 고춧가루 약 300근,
고 조보현님 도넛 345박스,
조OO 떡 360개

결식이웃후원 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서울모임

제2대 이사장 덕현스님 취임 고불식

7월 4일(일) 오전 11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맑고 향기롭게 제2대 신입 이사장 덕현스님 취임 고불식(告佛式)이 열렸습니다. 이번 고불식은 부처님, 법정스님, 전국 9천여 회원님들 앞에서 새로이 이사장을 모시게 되었음을 고해 올리는 의식으로, 참가 회원들은 다시 한번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덕현스님은 지난 5월 16일, 제39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자연을 찾는 사람들의 숲기행

7월 17일, 문경새재 옛길

문경 옛길은 2007년 국가명승지로 지정되었으며, 문경새재 1관문부터 3관문까지 6.5km 구간은 수백년 내려온 고운 마사토길이 조성돼 국가가 지정한 길 문화재입니다.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7월에 만나게 될 곳은 문경새재 옛길이며, 숲해설가 박희준 선생과 함께 합니다. 이 행사는 단기적으로 다녀오는 여행이나 성지순례

가 아닌, 한 해 동안 장기적으로 생태문화적인 시각으로 우리 숲과 지역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생태기행입니다. (5월 이후 신청자는 대기자로 접수되었으며, 자리가 있을 경우 연락드립니다.)

■ 집결지 및 출발시간

길상사 일주문 앞 - 오전 6시 10분 / 4호선 한성대역 5번 출구 - 오전 6시 20분 / 3호선 양재역 2번 출구 - 오전 7시(※ 출발 시간 엄수)

■ 준비물 : 도시락, 간식거리, 식수, 우산, 모자, 장갑, 등산화 착용 필수

■ 문의 : 02)741-4696/7(홍정근 팀장)

■ 남은일정 : 8월 21일 - 치산계곡 / 9월 18일 - 죽령옛길 / 10월 16일 - 죽계계곡 ~ 초암사~비로사~삼가리 구간

맑고 향기롭게 정기 회원만남

7월 16일(금) 오후 2시, 설법전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기 위한 노력으로 매월 회원만남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 덕현스님의 법문과 2부 행사로 진행됩니다.

7월 알뜰나눔장터

좀 더 친환경적인 생활을 위해 스

스로 점검하는 알뜰나눔장터. 이달의 관심은 의류 재활용팀의 솜씨 자랑입니다. 지난 6월 장마로 인해 취소되어 더 기다려지는 알뜰나눔장터 베틀시장. 직접 참여하여 추억 만들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7월 25일(일) 길상사 뜨락

7월, 8월 주말 선수련회 안내

- 7월17~18일(신참반 1박2일)
 - 8월28~29일(구참반 1박2일)
- ※ 7월 구참반, 8월 신참반은 「2010 여름 선수련회」 일정 등의 사정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7월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모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일손돕기 정기자원활동 / 매달 첫째 일요일(7월 4일) / 오전 8시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활동가
- 결식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7월 1일, 2일, 8일, 15일, 16일, 22일, 23일, 29일, 30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

도 좋을 일복 차림(※ 8일은 김치 담그는 날)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7월 11일) 오전 8시 20분 경복궁 건춘문 앞 출발
- 서울시립요양원 정기 자원활동 / 첫째 목요일(7월 1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역 1번 출구 집결 / 일반 자원활동자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7월 5일, 12일, 19일, 26일), 매월 첫째 수요일(7월 7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다른 요일 자원활동자도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자 교육 후 봉사
- 전화말벗봉사 월례회의 / 7월 12일(매달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 서울모임 사무실
- 각 봉사팀 모듬장 회의 / 7월 27일(화) / 매달 넷째 화요일, 오후 7시 / 서울모임 사무실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 / 매달 첫째 셋째 일요일(7월 4일, 18일) / 오전 9시 30분 ~ 12시 / 청소년 봉사자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3시(삼푸, 로션, 세럼, 한방비누 순으로 만들) / 소강당 옆 거사림 / 선착순 8명 마감 / 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강좌 / 매주 화요일 / 오후 2시 30분 / 소강당 옆 거사림 / 선착순 10명 마감
- 길상사 - 맑고 향기롭게 선수련회 주말 선수련회(신참반) : 7월 17 ~ 18일(※ 구참반은 여름 선수련회와 일정 겹쳐 열리지 않음) / 1차 여름선수련회(청소년) : 7월 24 ~ 26일 / 2차 여름선수련회(어린이) : 7월 27일 ~ 29일 / 3차 여름선수련회(일반) : 7월 31일 ~ 8월 3일 / 4차 여름선수련회(일반) : 8월 7일 ~ 10일
- 맑고 향기롭게 회원만남의 날 / 7월 16일(매달 셋째 금요일) / 오후 2시 / 설법전
- 숲기행 / 7월 17일(토) / 문경새재 옛길
- 알뜰나눔장터 / 7월 25일(일) / 길상사경내

일반사업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부산모임(051-898-2672~3)

7월 부산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로어르신 밑반찬 지원활동
7월 7 / 14 / 21 / 28일(매주 수요일)
10:00 ~ 12:00
- 장애인 이동목욕
7월 7 / 14 / 21 / 28일(매주 수요일)
09:00 ~ 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활동
7월 1 / 8 / 15 / 22 / 29일(매주 목요일)
10:00 ~ 13:00
- 노인건강센터 어르신 목욕활동
7월 1 / 15일(1, 3주 목요일)
9:00 ~ 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활동
7월 8 / 22일(2, 4주 목요일)
10:00 ~ 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 준비 및 배식, 설거지
7월 1 / 8 / 15 / 22 / 29일(매주 목요일)
09:30 ~ 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7월 2 / 9 / 16 / 23 / 30일(매주 금요일)
10:30 ~ 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및 장애

우 이동목욕

7월 2 / 9 / 16 / 23 / 30일(매주 금요일)

10:00 ~ 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목욕활동

7월 2 / 9 / 16 / 23일(1~4주 금요일)

09:30 ~ 12:00

- 3일(토) 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5일(월) 자원봉사자회의

(매달 첫 번째 월요일)

- 13일(화)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20일(화) 지역정화활동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20일(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23일(금)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금요일)

- 24일(토)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토요일)

경남모임(055-266-0170)

7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7/21) /

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 /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

-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
14시(7/27)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14시(7/3, 10, 17, 24, 31) / 창원 사
파복지회관 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
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5시
(7/2)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은비네 외

9가구)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
후 4시(7/9, 23) / 쌀, 밑반찬, 생활용
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

녁 7시(7/2, 9, 16, 23, 30)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주 수요

일 오전 11시(7/28) / 사무국

- 맑고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

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입신청 ☎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 - 경남 회원이 아

크릴사로 손뜨개한 친환경 수세미 구
입 가능 / 구입문의 ☎ (055)266-0170

- 운영위원회 - 7/13(화) 19시 성주사

대구모임(053-753-8883)

7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7월 10 ~ 11일 경주 감포 나정해수욕장 부근으로 자연문화유적 탐방을 갑니다. 선발대는 오전 10시, 본대는 오후 4시 남부정류장에서 출발합니다.
* 동참비: 2만원 / 준비물: 편한 복장, 여벌의 옷, 개인위생용품 등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 나누기 - 밀반찬지원 / 매주 수요일(7일, 14일, 21일, 28일) 11시 - 음식조리, 19시 - 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 수시모집
- 소리봉사 / 녹음봉사 - 매주 월요일: 개별녹음 / 정기모임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7시(예정)
- 례비니동산 자원봉사 활동 / 매월 둘째 토요일 10일(토) 오후 2시~6시
- 언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 방문 자원 활동 / 20일(화) 대구은행 본점 9시 출발 / 목욕, 식사케어, 빨래정리, 말벗 등
- 황금복지관 / (주병보조 및 기타정리 봉

사) 매월 첫째 화요일(6일) 11시부터

- 첫마음 정기 편집회의 / 둘째 토요일 10일 오후 3시
- 운영위원회 회의 / 첫째 금요일(2일) 본회 차담실
- (사)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현스님 고불식. 7월 4일 오전 11시 길상사

광주모임(053-753-8883)

7월 광주모임 정기활동 안내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주 월 ~ 금 각하복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사자 20명이 요일별로 조리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쌀, 양념류, 생필품 등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리시간: 오전 10 ~ 12시)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7월 대상도서: 아름다운 마무리) / 주관: 현장스님 / 7월 29일(매월 지장재일) 오후 2시 지장왕사



<아침 좌선 수행>

하얀거 동안 주지스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진지하게 수행을 하려는 분이 라면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기간: 5월 28일 ~ 8월 24일
(매일 아침 7시 ~ 9시)
- 장소: 설법전(수련회 기간에는 도서관)

<불교대학 여름특강>

일요일 오후 2시 설법전, 불교대 학생 및 일반인 청강가능

- 7월 4일(일) / 불교의 생명관 / 우희종 서울대 교수
- 7월 11일(일) / 불교의 여성관 / 조승미 동국대 강사
- 7월 18일(일) / 삼국시대의 불교미술 / 조정욱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저자

<English Meditation Class>

수월스님과 함께 하는 영어 참선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매주 화 오후 7:30 ~ 8:00 참선 / 8:00 ~ 8:30 참선 안내, 법담 / 8:30 ~ 9:00 차담
- 참여방법 : gs_zencenter@naver.com

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고 시간에 맞춰 오시면 됩니다.

<백중기도 49재 일정 안내>

초재 - 7월 13일 / 2재 - 7월 20일 / 3재 - 7월 27일 / 4재 - 8월 3일 / 5재 - 8월 10일 / 6재 - 8월 17일 / 막재 - 8월 24일(오전 10시, 극락전)

<지장전 천일기도 500일째 회향, 600일째 입재>

지장전에서 봉행하고 있는 천일기도 500일째 회향이 7월 26일에 있습니다. 회향일에는 영가천도를 위한 시식도 합니다. 600일로 향하는 기도 입재는 7월 27일입니다.

<법문 촬영 자원봉사자 모집>

주지스님과 수련원장님의 가르침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홈페이지에 동영상(또는 음성)으로 법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법문이 늘어감에 따라 일손이 부족해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주된 촬영은 토요일법담(토요일 오후 2시)과 일요법회(일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종무소(3672-5945)로 연락바랍니다.

<신행단체 자원봉사자 모집>

- 보현회 - 후원(선열당) 봉사 /
합창단 - 찾집 봉사 및 음성 공양 /
문수회 - 도량 안내 및 안내실 봉사 /
지장회 - 법당 청소 및 재 관련 봉사 /
관음회 - 불기 닦기 및 수련회 봉사 /

<7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및 기도>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첫째 주는 주지스님, 나머지 주는 정
화스님
- 토요일법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설
법전
- 삼천배기도 / 7월 10일(토) 8시 반
- 극락전 기도 / 매일 새벽 4시, 오전 10
시, 저녁 7시
- 지장전 기도 / 매일 새벽 4시, 오전 10
시, 저녁 7시
- 거사람 정기법회 / 1, 3주 일요일 오후
1시 / 설법전
- 보현회 정기법회 / 매달 음력 초하루 /
7월 12일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 매달 셋째 월요일 /
7월 19일 오후 1시
- 지장회 정기법회 / 매달 둘째 월요일 /
7월 5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 매달 넷째 화요일 /

7월 27일 오후 1시

- 보리회 정기법회 / 매달 첫째 월요일 /
7월 5일 오후 1시
- 청년회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
시 / 도서관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소강당
- 청소년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도서관

< 정정합니다 >

지난 5월호의 <법정 스님 저서
절판과 관련하여>란 사무국 공지
글 중 스님의 유언집행인 “김금
선 거사”를 ‘김남선 거사’로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글
을 쓴 이의 실수였으며 또한 제
때 바로 잡지 못하는 결례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김금선 거사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께도 거듭 사
과와 양해를 구하오니 널리 헤아
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자경

이런 · 얘기 · 저런 · 얘기

요즘 맑고 향기롭게로 여름 선수련회 문의 전화가 폭주합니다. 90명을 모집하는 ‘어린이 선수련회’는 며칠만에 마감되었고, 청소년과 일반인 신청도 꾸준하게 들어와 담당간사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모집도 모집이지만 알찬 내용으로 실수없이 진행해야 하기에 긴장감도 늦출 수가 없군요. 7, 8월 두 달 동안은 주말 선수련회 포함 크고 작은 수련회를 6번 치러야 하니, 아무래도 봉사자와 활동간사들이 총 동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맑고 향기롭게에서 마음사업의 하나로 주관하는 선수련회는 그 연원을 법정스님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스님께서서는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송광사 수련원장을 맡으시면서 한해 6~7차례에 걸쳐 5백여 명 이상의 수련원생들을 배출했는데, 그 후 선수련회가 전 불교계로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템플스테이가 작년에 OECD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올해는 국가브랜드위원회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아이콘으로 선정되었다는군요.

이제는 주말이나 휴일에 단순히 산에 오르는 것만으로는 현대인들을 충족시킬 수 없나 봅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 사람들의 영혼까지 지쳐있는 걸까요. 이렇게라도 산사를 찾아 몸과 마음을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정체성마저 잃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길상사-맑고 향기롭게’ 선수련회가 개개인에게 좋은 인연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내내 행복한 비명을 지를 준비가 되어있으니 전화 많이 주세요. 